

이 佛像의 位置가 菩提寺에서는 咫尺之間이오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不拘하고 南山全體의 佛敎遺蹟을 빠짐 없이 調査 收錄한 前記「慶州南山佛蹟」에서 漏落된 理由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前記 報告書에는 破塔 瓦片에 이르기까지 報告되어 있는데도不拘하고 秀作에 屬하는 이 佛像이 言及되지 않았음으로 여기 紹介하여 두 고자 한다.

前記한 岩石은 佛像이 彫刻된 面만이 一定한 두께로 된 바위에서 分離되어 있는데 그 前面에 光背形으로 길이 約 四cm의 龕形을 과고 佛像이 彫刻되었다. 光背形은 頭部·身部·膝部에 該當하는 部分에서 屈曲을 두고 頂部는 寶珠形을 이루었다. 像은 매우 保存狀態가 좋아서 刀痕이 明瞭하다.

頭髮은 螺髮로 하나 하나 刻明하게 表現되었는데 肉髻는 그다지 크지 않다. 兩耳는 길게 늘어졌는데 相好는 豐滿優麗하다. 눈은 실눈같이 가늘고 眉線도 매우 아름답다. 鼻梁은 낮아 보이나 鼻端에 若干의 損傷이 있는 듯도 하다. 口脣은 比較的 적은데 微笑를 품고 있다. 이 微笑는 口脣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볼에 살을 붙이고 눈을 가늘게 함으로서 顔面의 筋肉全體가 움직여 微笑를 나타낸 것으로 놀라운 寫實的 表現이라 하겠다. 목은 짧은데 三道가 簡單히 나타나 있다. 法衣는 通肩인데 衣文의 表現은 그다지 明瞭하지 않다. 兩手는 紐部를 가리면



서 腹部에서 前面으로 늘어진 衣端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데 이러한 式은 이 附近에 있는 佛谷磨崖如來坐像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두 팔이나 結跏趺坐한 무릎에 나타난 衣文은 數條의 線

으로 매우 簡單하게 取扱되었는데 顔面 彫刻에 比하면 疎忽함이 지나친 感이 있다. 前面에 늘어진 衣端만은 제법 衣褶을 表現하려고 하였으나 亦是 大端치 않게 지나친 탓인지 매우 鈍해 보인다. 膝下에는 重瓣으로 表現된 蓮花 三葉이 前面에만 있는데 이 亦 刻線이 稀微하다.

以上은 이 佛像에 對한 大綱의 記述이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面相은 至極히 功을 들여 新羅佛로서 秀作이라 하겠으나 下體로 내려올수록 粗放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龕形 亦是 頭部에서는 깊어 왔으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얕아져서 蓮瓣에 이르러서는 岩石表面과 같아지고 만다. 衣文은 매우 두꺼워서 肢體의 表面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均衡이 잡힌 體軀에 上體의 彫刻은 불만하고 龕形의 形式은 特異하다. 那樣式이나 彫刻 手法으로 보아 前記 菩提寺의 石佛坐像보다는 年代가 앞서는 作品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八世紀 中葉을 前後한 作品이 아닐까 생각된다. 本像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龕形高一·四八m 同下部幅 八三cm
像坐高一m 膝幅 七三cm 肩幅 五九cm 頭高二九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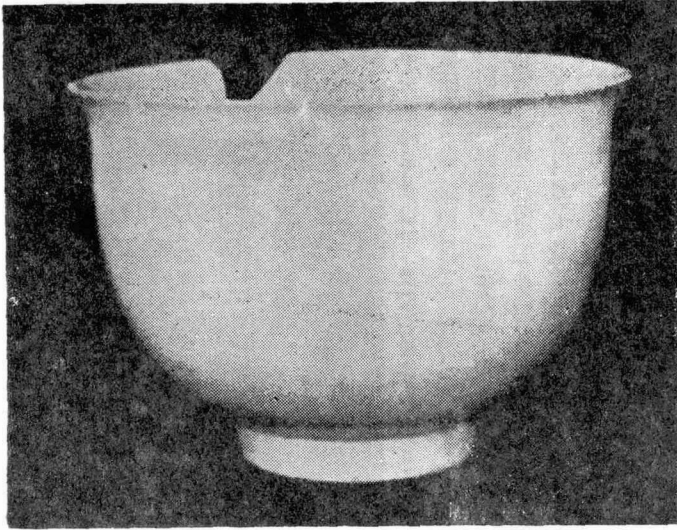
辛亥銘白磁砂鉢

崔 淳 雨

李朝初期에 屬하는 在銘白磁器는 그 例가 매우 드물며 있다 하더라도 紀年銘은 더 드물어서 初期白磁 編年研究에 재 資料의 出現이 待望되어 왔었다. 이번엔 우연히 京畿道 廣州郡 實村面 蓮谷里에서 李斗永氏가 同氏의 祖父墓를 移葬하다가 發見해서 國立博物館에 報告해 온 辛亥銘白磁砂鉢같은 것은 이러한 紀年銘資料로서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遺物이라고 할 수 있으며 稀貴한 李朝白磁編年資料를 하나 더한 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白磁砂鉢의 出土狀態와 伴出物에 關해서는 詳細한 情報을 얻지 못했으나 다만 또 하나의 同形小砂鉢이 申告되었을 뿐이며

기에는 銘文이 없었다.

이 「辛亥銘」砂鉢은 典雅한 李朝前期砂鉢의 아름다운 形態를 잘 갖추었는데 白磁의 發色은 오히려 희다기 보다 溫雅한 灰白色에 가까우며 帶靑牙白의 失透性 細藥이 많고 고르게 씨워져 있다. 굽은 分院前期白磁特有的 輪郭을 쓰지 않은 整齊된 施釉이며 比較的 높은 굽이 약간 안으로 오그라져 있고 銘文은 이 굽 밑에 서툰 솜씨로 오른쪽 半部에 「辛亥」 왼쪽 半部에 「左」字가 各其 線刻되어 있다. 左字의 意義는 尙解明되지 않으나 李朝初期의 「辛亥」는 世宗十三年(一四三二 A. D.)과 成宗二十二年(一四九二) 그리고 明宗六年(一五五二) 등으로 이 「辛亥」銘大接은 이제개의 辛亥중 그 어느 하나에 該當된다고 하겠는데 磁質과 器形制度로 보아서 이제까지 알려진 所謂 白磁專用時代에 가까운 遺物일 것으로서 아마도 一四三一、 또는 一四九一을 더 내려가지 않는 遺物로 推定이 되 어진다. 一例를 들면 國立博物館所藏 弘治十八年(一五〇五) 銘誌石과 伴出된 胎 質의 그릇 中에 이번 辛亥銘砂鉢에 恰似한 分院産砂鉢이 往 往 눈에 띄이며 이미 알려진 庚寅銘·壬辰銘의 註 同形 사발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兩者가 거의 同時代의 分院



第四卷 第四號 通卷三十三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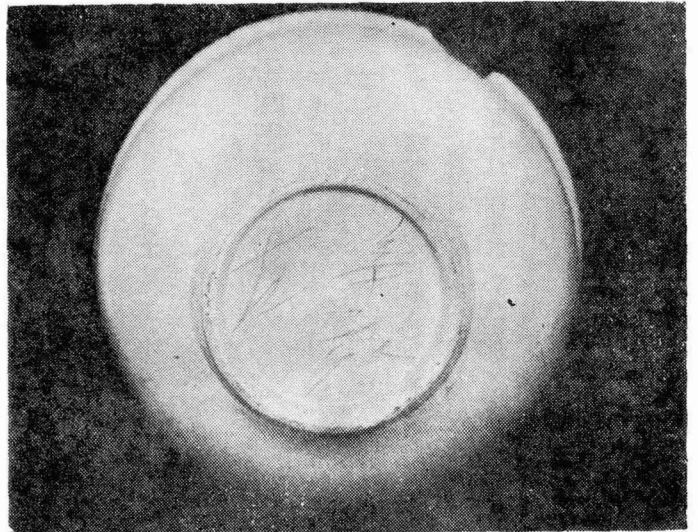
으로서 아마도 一四三一、 또는 一四九一을 더 내려가지 않는 遺物로 推定이 되 어진다. 一例를 들면 國立博物館所藏 弘治十八年(一五〇五) 銘誌石과 伴出된 胎 質의 그릇 中에 이번 辛亥銘砂鉢에 恰似한 分院産砂鉢이 往 往 눈에 띄이며 이미 알려진 庚寅銘·壬辰銘의 註 同形 사발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兩者가 거의 同時代의 分院

産일 것을 推定할 수 있게 해준다. 어쨌든 이 「辛亥」年의 比定은 좀더 資料를 갖추어서 次後에 詳考를 期할 생각이다. 그릇의 높이는 一二 cm 口徑은 一七·四 cm 底徑 七·五 cm

(註) 庚寅(一五三〇) 壬辰(一五三三) 淺川伯教 推定(平凡社 陶磁器全書一七)

唐朝의 舍利塔

金 元 龍



足立喜六 著 「長安史蹟の研究」(東洋文庫 論叢第二十之一) P. 一一一에 鳩摩羅什의 舍利塔이 紹介되어 있다. 鳩摩羅什는 西域僧으로서 西紀四〇一年에 後秦姚興에 招聘되어 長安 西南方에 있는 逍遙園에 와서 譯經에 從事하였다. 其後 唐武宗代에 이 자리에 草堂寺가 세워지고 昭宗 때 勅命으로 重修된 일까지 있지만